

시간의 동물

“브레닌에게 암이란 순간의 고통이었다. 어떤 특정한 순간에 브레닌은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순간, 가령 한 시간 후에 그는 고통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매 순간을 그 자체로 완성시키고 있을 뿐, 그 순간들은
서로 아무 연관이 없다. 반면, 나에게 암이란 순간의 고통이 아닌 시간의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다. 암 혹은 다른 중병이 주는 공포는 연속된
시간에 걸쳐 존재하는 것이다. 그 공포는 욕망·목표·과제라고 불러 온 내
화살들이 꺾여 버리리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데서 온다.

(…)

우리는 시간적인 존재이기에 우리가 겪는 커다란 고통 역시 시간적인
상처일 뿐이다. (…) 인간에게 매 순간은 끝없이 유예된다. 매 순간의 의미는
다른 순간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 내용 또한 다른 순간들로부터 회복될 수
없는 영향을 받는다.”¹

철학자 마크 롤랜즈가 쓴 『철학자와 늑대』 속 한 구절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브레닌은 마크 롤랜즈와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늑대다. 브레닌은 암에 걸렸고, 곧
죽음을 앞두고 있다. 그럼에도 잠깐 기적처럼 찾아온 고통 없는 순간, 브레닌은
숲을 지나 수로의 독길까지 지침 없이 달린다. 병이 없던 때와 다름없이, 우아하고
가벼운 활주다. 순간-들을 연결하여 시간을 구성하는 인간이라면, 잠깐의 고통
없는 순간을 브레닌처럼 즐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브레닌에게 그 순간은
죽음을 향해가는 시간 속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온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
순간이 향하고 있는 끝에 버티고 있는 죽음을 떠올리지 않고, 고통 없음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늑대이므로 가능한 일이다. 어떤 의미에서 늑대는 인간보다 우월하다.

나는 종합병원의 수술실 앞 보호자 대기실에서 이 책을 읽었다. 세 시간째 대기
중이었다. 수술을 받던 이는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고, 그가 갑작스런 사고를
당한 뒤 한나절 반쯤 지난 시점이었다. 그 수술은 큰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다. 전부 미래에 달렸을 터였다. 탈 없이 수술이 끝나고 회복된다면, 두어
달 지나면 별일 아니라고 웃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완벽하진 않겠지만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반대의 경우가 가능성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게

열려 있었다. 다시는 이를 전의 일상이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모든 게 나뻘 수 있었다.

괴로운 상상을 펼쳐보려고 습관처럼 가방에 쑤셔 넣었던 책을 펼쳤고, 그게 바로 이 책이었다. 책을 뒤적거린 덕에 미래에 대한 뭉클 상상이 지금 나를 지옥으로 밀어 넣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책에서 이야기하듯이 인간은 “시간적인 존재”인지라, 적막한 보호자 대기실에서의 지금을 미래에 닥칠지 모를 불운해진 일상의 가능성과 연결 지어 생각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지금의 순간이 어떤 미래로 가닿을지, 그에 따라 달라질 지금의 의미에 대해 생각이 생각의 꼬리를 물었다. 그것은 분명히 시간의 고통이었다.

여기 예순이 좀 지난 남성이 있다. 이름 난 기업에서 신입사원부터 고위 임원직에 이르기까지 30년 가까이 일한 뒤 서너 해 전에 은퇴했다. 은퇴 직후에는 좀 작은 규모의 회사 두어 곳에서 고문 명함을 건네준 덕에 사회 속 좌표를 유지하며 살았지만, 그마저도 이젠 지난 일이다. 은퇴 후 그의 모든 순간은 내리막의 시간을 구성하는 일부다. 모든 순간이 과거와 경쟁한다. 과거는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지금은 과거와 이어지는 선상의 일부다. 내리막의 시간에 사는 그의 지금은 언제나 최저치를 갱신하고, 그래서 그의 순간들은 언제나 남루하다. 그는 끊임없이 과거를 소환하려고 분투한다. 과거에 의미를 부여하고, 정체성의 닻을 과거에 둔다. 뻘어지지 않은 채 마음속을 맴돌고 있는 “나 이런 사람이야”라는 말은 정확히 하자면 “나는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로 수렴한다. 그의 분투가 성공한다고 해도 지금 순간들이 충만해질 리는 없다. 그에게는 지금 순간을 살 능력이 없다. 그는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 매일 집을 나선다. 출근으로 시작하고 퇴근으로 맺는 하루의 풀이야말로 그가 놓을 수 없는 최소한이다.

그 오피스텔의 1층에는 여느 오피스텔과 다를 바 없이 편의점이 하나 있다. 곧 있으면 서른이 될 청년이 편의점에서 밤마다 알바를 한다. 예순 넘은 그가 편의점을 지나 ‘퇴근’하고 두어 시간이 지나면 청년이 출근을 한다. 청년은 편의점에 취업해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취업준비생이다. 대학 4학년이던 지난해, 그리 놀랄 것 없이 취업에 실패했고 결국 졸업할 해 미뤘다. 올해 역시 상황은 지난해와 그리 다르지 않다. 취업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 청년은 지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막막하다. 막막함은 모른다는 데서 오는 것은 아니다. 닥쳐올 미래는 뻘하다고, 청년은 생각한다. 취업을 할 수 없다면, 언제까지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겠지. 취업을 할 수 있다면, 형편은 물론 나아질 것이다. 그러나 취업 뒤의 미래조차 전도유망할 것이라고 청년은 믿지 않는다. 운이 좋아봤자 갈 수 있는 직장이란 거기서 거기다. 그중 제일 좋은 곳에 들어간다 해도, 벌어들일 수입이야 뻘하고 그걸로 모을 수 있는 자산은 어떤 안정도 보장하지 않을 것이다. 부모가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는 때가 온다면? 그가 애써 머릿속에서 떨쳐내려 하는, 그러나 닥치고야 말 미래다. 그리하여 서른이 갓 되지 않은 청년조차 내리막의 시간을 산다. 그의 지금은 미래와 이어지는 선상의 일부다. 그 미래는 어떤 경우의 수를 따져보아도 밝지 않은 것 같다. 돈 버는 부모와 함께 사는 지금이 어찌면 그가 누릴 최고치이고, 그래서 그의 지금 순간들은 언제나 남루하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간과 싸운다. 지금은 온전히 지금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언제나 과거가 혹은 미래가 끊어지지 않는 실이 되어 질질 달라붙는다. 누군가는 지금을 과거와 견주느라, 누군가는 지금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가늠하느라 허덕인다. 이 싸움은 모두 의미 혹은 무의미와의 싸움일 것이다. 순간을 순간-들의 연결 안에서 해석하고, 그를 통해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로서 삶의 서사를 구성하고, 나아가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제 늑대가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운이자 겪게 되는 고통이다. 지금 순간이 내리막의 시간을 이룬다고 해석될 때,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인식은 고통 쪽으로 기운다. 그럴싸했던 과거는 돌아오지 않고 남은 건 내리막뿐이라는 고통. 또는 그럴싸한 미래는 내 뿜이 아니고, 아차하면 지금보다 더 나쁜 쪽으로 미끄러져 내리고 말 내리막뿐이라는 고통.

지금쯤 즐기라는, 온전히 현재를 살라는 잠언이 해법처럼 주어지기도 한다. 인간이되 늑대처럼 살라는 주문인 셈이다. 그러나 늑대처럼 사는 것이 인간에게 지속가능한 해결책일 리는 없다. 인간이 늑대처럼 지금을 감각하는 순간이 물론 존재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늑대가 아닌 인간이 해석하지 않고 감각만 하며 일상을 산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인간은 해석하고 어떤 식으로든 의미를 부여하는 뇌를 갖고 태어난다. 그러니 이 내리막의 시간을 돌파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지 파고드는 수밖에.

흔한 방식의 사회 속 위계로 과거와 지금을 연결 짓지 않아도 좋지 않을까. 전도유망하지 않을 미래에라도 부여할 수 있는 의미는 있을 것이다. 어떤 기준에서는 내리막일 것이, 또 다른 기준에서는 오르막일 수도 있다. 10년, 20년, 30년짜리 서사의 무게에 짓눌리는 대신, 한 달, 6개월, 혹은 1년짜리의 충만한 서사들을 이어붙이며, 그 시간 안에서 ‘남들만큼’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필연적으로 정신승리에 불과할지라도. 그러려면 우리에게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필요하다. 각자가 들려주는 나름대로의 이야기들, 나름대로의 해석과 나름대로의 의미부여들.

시간의 동물에게는 그런 이야기의 역량이 필요하다.

1 마크 롤렌즈, 『철학자와 늑대』,
서울: 추수밭, 2012, 303쪽.